

# 엔비디아와 'AI 핵심 파트너'... 우뚝 선 삼성·SK

삼성 '그록3' 엔비디아 공급... 젠슨 황 '삼성에 감사' 특별 언급  
최태원 회장, 황과 SK부스 찾아... 최신 메모리 함께 둘러봐

## 새 동맹 체제 연 GTC

엔비디아 글로벌 인공지능(AI) 컨퍼런스 GTC 2026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3월16일부터 1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니제이에서 열리는 GTC 2026에 참가해 차세대 HBM4E 기술력과 메모리 토털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HBM4 Hero Wall'을 통해 HBM4부터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메모리 로직 설계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IDM)만의 강점을 부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통해 축적한 1c D램 공정 기반의 기술 경쟁력과 삼성 Foundry 4나노 베이스 다이 설계 역량에 바탕으로 차세대 HBM4E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사 둘째 날인 17일(현지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특별 초청으로 송용호 삼성전자 AI 센터장이 발표에 나서 AI 인프라 혁신을 이끌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삼성의 메모리 토털 솔루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조 연설에서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록3 언어처리장치 칩을 제조하고 있다"라며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삼성을 특

별히 언급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필수 과제로 여겨졌던 엔비디아 생태계 진입을 넘어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의 그록3 언어처리장치 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 시스템에 탑재되며 3분기에 출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또한 GTC 2026에 참가해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스포트라이트 온 AI 메모리'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AI 메모리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한다.

SK하이닉스는 HBM4, HBM3E, SOCA MM2 등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들이 엔비디아의 다양한 AI 플랫폼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GPU 기반 AI 가속기에 탑재된 메모리 구성을 모형과 실물 형태로 구현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만든 액체 냉각식 eSSD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PDDR5X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도 함께 전시한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GTC 2026 현장을 찾았다.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AI 생태계 혁신 파트너로서 HBM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협력을 한층 넓혀가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황 CEO와 동행해 행사장 내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아 AI 메모리 사업의 최신 성과를 살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연례 개발자대회 'GTC 2026'의 SK하이닉스 전시장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율주행의 챗GPT"... 현대차에 적용된다

레벨2부터 4까지 로보택시까지 확장 구축  
AI·SDV 기반 차세대 플랫폼 공동 개발

엔비디아가 보유한 레벨 2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차·기아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레벨 4 로보택시까지 확장한 자율주행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차·기아는 17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현대차·기아의 자체적인 SDV 역량과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분야 기술력을 결합해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GTC 2026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차를 로보택시 파트너로 언급했다. 이어 "오랫동안 자율주

행차를 연구해 온 결과 마침내 자율주행의 챗GPT 순간이 도래했다"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이페리온은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센서, 카메라 등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를 묶은 레퍼런스(표준) 설계구조다.

엔드 투 엔드(End-to-End) 플랫폼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운전자 보조 기능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술까지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센터 기반 AI 학습, 대규모 시뮬레이션, 차량 내부 컴퓨팅 시스템을 통합한다.

자율주행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확장 가능한 통합 설계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에 가속도를 내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중심으로 레벨 4 로보택시의 기술 고도화를 본격화하고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현대차는 레퍼런스 설계구조인 하이페

리온에 축적한 경험을 더하면 최적화된 SDV 설계구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내재화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은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하이페리온 도입을 계기로 △영상-언어-행동 등 각종 데이터 수집 △AI 학습 및 성능 향상 △실제 차량적용 △데이터 품질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현대차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광범위한 데이터, 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얻은 데이터를 단일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한다.

이영훈 기자yhlee@skyedaily.com

## 식품값 내리고 외식값 올리고... 물가 '온도차'

정부의 먹거리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국내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서 업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국내 기업에 집중되면서 가격 정책에서도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오뚜기, 삼

양식품, 팔도 등 주요 라면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농심은 안성라면, 육개장사발면 등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7% 낮추고, 오뚜기는 진짬뽕과 짜술랭 등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6.3% 인하한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리고 팔도 역시 팔도비빔면 등 19개 제품 가격을 평균 4.8% 인하한다.

라면업계의 이번 가격 조정은 정부의 물

가 안정 요청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 담합 조사와 함께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하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제당사와 제분사들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을 낮췄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체에도 가격 인하 압박이 이어졌다.

제빵·제과업체도 같은 흐름이다. 파리바게뜨와 푸레쥬르는 일부 빵 가격을

100~1000원 낮췄고 해태제과도 비스킷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 롯데웰푸드와 오리온, 빙그레 등 다른 제과·빙과업체들도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하면서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SPC, CJ푸드빌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대부분 가격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외식업계, 특히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KFC는 최근 치킨과 버거 등 23개 메뉴 가격을 200~300원 올렸고, 맥도날드는 35개 메뉴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다. 버거킹도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7200원에서 7400원으로 올렸으며 맘스터치 역시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을 올린 주요 브랜드 대부분이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물가 정책이 사실상 국내 식품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정부 정책

이나 규제 방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반면,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정책 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식품기업들의 수익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롯데웰푸드는 2.6%까지 떨어졌다. 오뚜기 역시 영업이익률이 4% 수준에 머물렀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김나윤 기자nykim@skyedaily.com

SkyDaily

# 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 대한민국 첫 '부의 지도' 서비스

**부자의 성(城)**  
서초 강남 용산 SKY!!!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  
놓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